

Monthly Report 6月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목차

6월 일정

깐피 소개 ver.4

Youth Development Program

쉬어가는 코너 1

레스토랑

쉬어가는 코너 2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환경의 날

뚝레바티

쉬어가는 코너 3

프놈펜 나들이

덤프사이트 위생교육

깐피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법

쉬어가는 코너 4

개인есе이



6월 일정

Mon	Tues	Wed	Thurs	Fri	Sat	Sun
1 Holiday · 휴식 - 프놈펜 나들이	2 · 환경의 날 이야기 나눔 · CDP 취소됨 · 한국어 수업 · 마을아이들 수업 못함	3 · CDP - Hydroponic · 영어 1 & 2/마을아이들 수업	4 · CDP - Hydroponic · 350ppm 전야제 예정 - 취소 · AttiDay - 농구 · 유스들과 영화 · 레스토랑 - 김치찌개 수업	5 · 환경의 날 - 캄보디아 정부행사 참여 · 영어 1 / 마을아이들 수업 · 영어 2 수업대신 게임	6 · 톤레바티 도시락 준비	7 · 톤레바티 놀러감 - 유스들 19명과 함께
8 · 덤프사이트 방문 - with 어덤, 피룸	9 · 레스토랑 미팅 - with 탄, 피룸, 소포안 · 한국어 / 마을아이들 수업 · IFS	10 · 덤프사이트 미팅-with 피룸 · 레스토랑미팅 - 취소 · 영어 1 & 2/마을아이들 수업 · 피룸, 소포안과 점심식사	11 · AttiDay - Poverty · 유스들과 영화 - '설국열차'	12 · 레스토랑 미팅 - with 맹, 피룸, 탄 · 덤프사이트 준비 · 영어 1 & 2/마을아이들 수업 · 어덤과의 막사타임	13 · 승일 & 원섭 프놈펜 데이트 · 지수 & 현정 & 민주 - 유스 친구집 방문	14 · 휴식
15 · CDP-Hydroponic(뿌 몬) · 영어 1 수업 못함 · 영어 2 / 마을아이들 수업	16 · 350ppm - 19일로 미뤄짐. · CDP-Hydroponic(뿌 몬) · 한국어 / 마을아이들 수업	17 · CDP-Hydroponic(뿌 몬) · 영어 1 & 2 수업 못함 · 마을아이들 수업 · 프놈펜 저녁 나들이 - 냉면	18 Holiday · 유스들과 마을아이들과 '깐피 영화관 - 월드'	19 임시공휴일 · 프놈펜 - 구제시장 근처 나들이	20 · 프놈펜 - '쥬라기월드' 보고 치맥	21 · 휴식
22 · 짜뜨라의 할머니님 장례식 · 러시아인 마켓 -with 피룸, 소포안, 봉브언 · 영어 1 & 2/마을아이들 수업	23 · CDP-Hydroponic (뿌 몬, 뿌 피오) · 한국어 / 마을아이들 수업	24 · CDP-Hydroponic (뿌 피오) · 350ppm과 덤프사이트 준비물 구매 · 영어 1 수업 대신 축구 · 영어 2 / 마을아이들 수업	25 · CDP-Hydroponic(뿌 피오) · 350ppm-유스들과 마을청소 · IFS 수확	26 · CDP-Hydroponic (뿌 피오) · 영어 1 수업 못함 · 영어 2 / 마을아이들 수업	27 · 덤프사이트 '위생교육' - with 피룸, 유스들	28 · 휴식
29 · 영어 1 & 2/마을아이들 수업	30 · 한국어 / 마을아이들 수업 · 케이스스터디 회의					

깡피소개 ver.4



마지막 간디소개입니다. 무난했던 간디소개 ver.1과 달은 꿀을 소개했던 간디소개 ver.2 그리고 5명의 간디의 얼굴을 모아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던 간디소개 ver.3에 이어 간디소개 ver.4를 해보겠습니다. 13기 아띠들의 월간보고서를 보던 간디들은 애니어그램이 꽤나 재미있어 보였고 ... 그래서 간디들도 해봤습니다! 애니어그램! 4개월 이상 함께 살아온 간디들은 서로의 애니어그램 결과에 공감하여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8번 유형
이지수: 도전하는 사람
(지도자)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7번 유형
김민주: 열정적인 사람
(만능가)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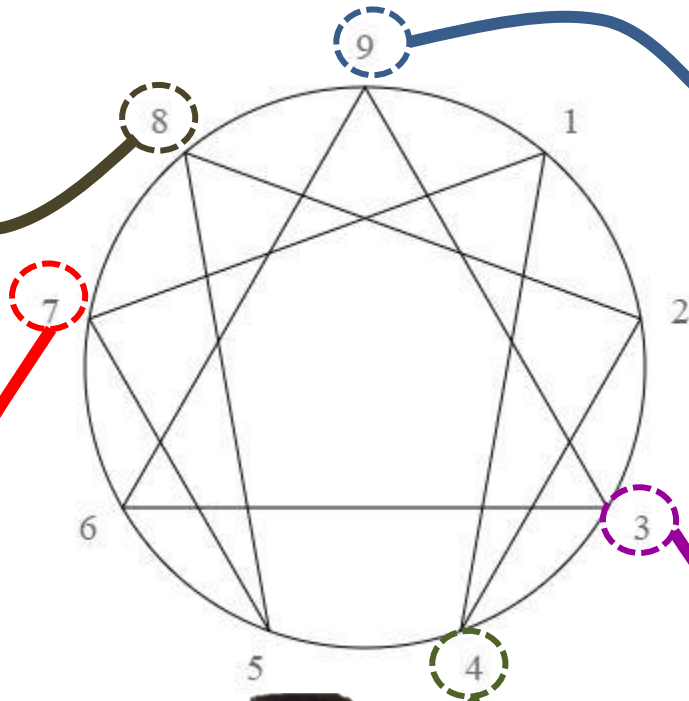


4번 유형
윤원섭: 개인주의자 (예술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9번 유형
국승일: 평화주의자
(조정가)
"나는 그저 흐름을 따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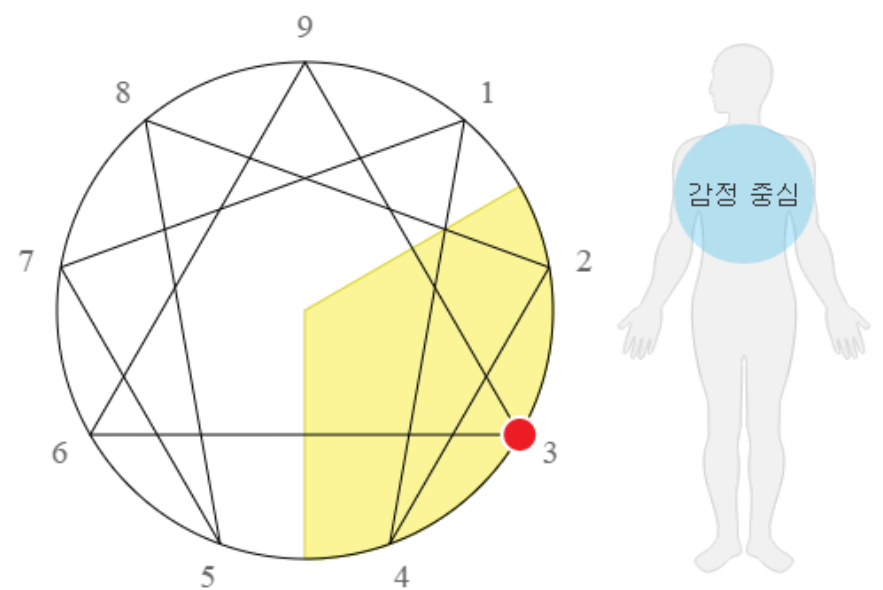


3번 유형
차현정: 성취하는 사람
(선동가)
"나는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일
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3번 유형
차현정: 성취하는 사람 (선동가)
 “나는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성공 지향적이며 실용적인 유형
 적응을 잘하고 뛰어다니며, 자신의 이미지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3번 성격 유형에게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건강할 때 삶의 많은 영역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 본성의 '별'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다. 건강한 3번 유형은 어떻게 자신을 개발하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안다.

존재의 자아상
 칭찬할 만함. 잘 적응함. '무한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 뛰어난. 매력적. 호감이 감. 효율적.

기본적인 욕망
 가치 있게 여겨지고자 하는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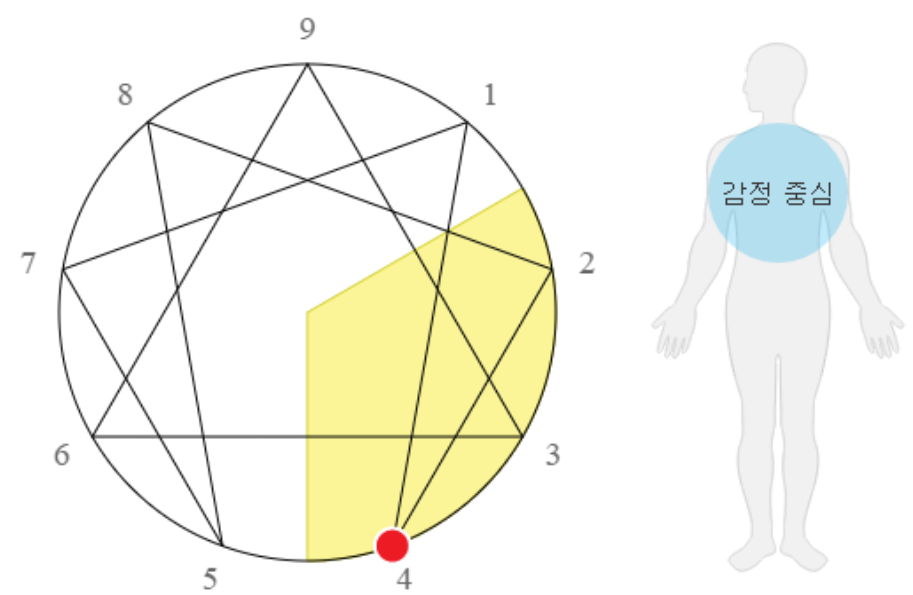
강조점
 효율적이고 유능하며 뛰어나게 되는 것.

감정 관리
 감정을 억압, 자신의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얻는 성취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상쇄.

풍요로의 초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본보기가 되기.



4번 유형
운원섭: 개인주의자 (예술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민감하고 안으로 움츠러드는 유형
 표현력이 있고 극적이며, 자신의 내면에 빠져
 변덕스럽다.



우리는 이 유형에게 개인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4번 유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들은 자신에게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결함이 동시에 있다고 여긴다. 4번 유형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결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존재의 자아상
 민감함. 고요하고 깊음. 부드러움. 남들과 다름. 자의식이 강함. 독특함.
 자신에게 정직함. 직관적.

기본적인 욕망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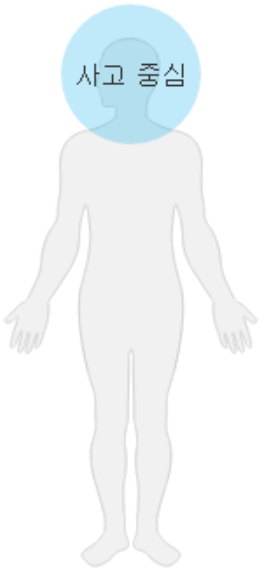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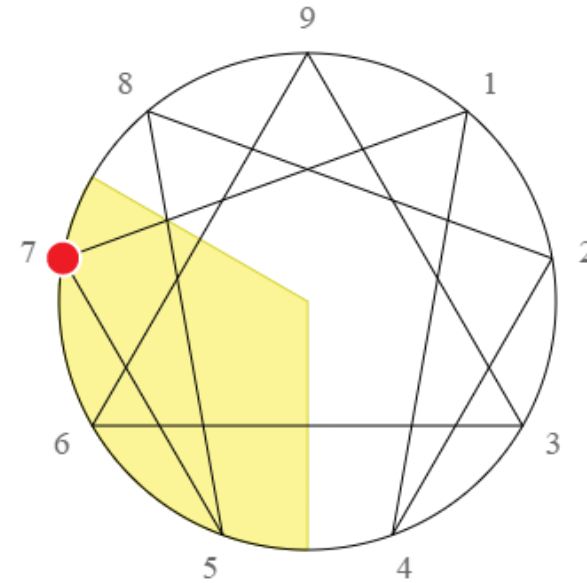
추구하는 것
 구원자.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

두려움
 버려지는 것 -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나를 찾고 내가 되기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함.

풍요로의 초대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 새로워지기.



7번 유형
김민주: 열정적인 사람 (만능가)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늘 바쁘며 재미를 추구하는 유형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욕심이 많고
 산만하다.



7번 유형은 자신의 주위를 끄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열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형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재미있는 것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로 가득 차 있으며 호기심과 낙천주의, 모험심을 가지고 삶에 접근한다. 이들은 대담하고 쾌활하며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좇는다.

존재의 자아상
 열정적. 자유로움. 쾌활함. 열망이 강함. 활달함. 에너지가 많음. 긍정적.

기본적인 욕망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

강조점
 긍정적인 경험. 즐거운 활동. 흥분. 재미

보기를 피하는 것
 자신의 고통과 공허 -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만들어 내는 자신의 역할

풍요로의 초대
 기쁘게 존재를 축복하고 당신의 행복을 나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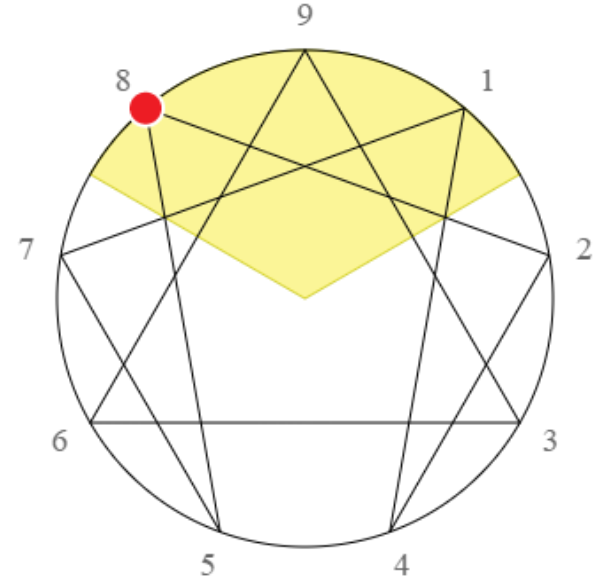


8번 유형

이지수: 도전하는 사람 (지도자)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힘이 있으며 남을 지배하는 유형
자신감 있고, 결단력 있으며, 고집스럽고
사람들과 맞서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8번 유형에게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들은 스스로가 도전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떤 일에 도전해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해 내도록 격려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온갖 종류의 일, 회사를 시작하는 것, 도시를 건설하는 것, 집안을 꾸려 나가는 것, 전쟁을 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등을 할 만한 카리스마와 신체적, 심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존재의 자아상

강함. 독립적. 자기 주장이 강함. 능력이 많음. 직선적. 행동 중심. 건장함. 집요함.

기본적인 욕망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

추구하는 것

독립성과 스스로를 의존하는 것. 이들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않기를 원함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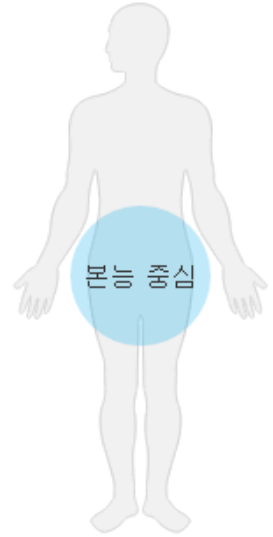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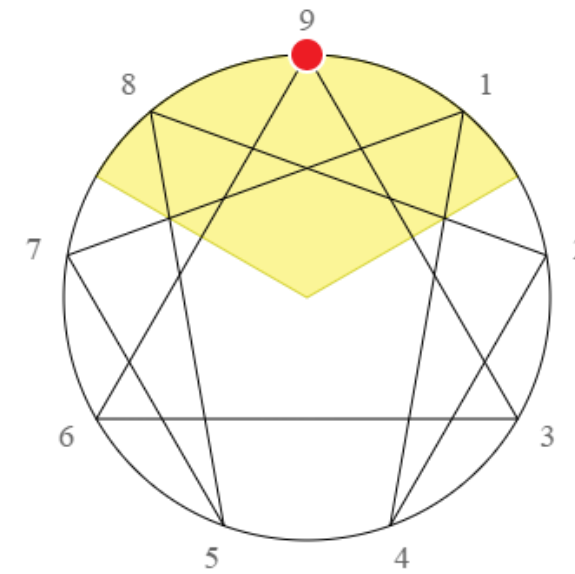
통제 당하는 것.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것. 약한 면을 드러내게 될까 두려워함

풍요로의 초대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하기.



9번 유형
국승일: 평화주의자 (조정가)
“나는 그저 흐름을 따라간다”
 느긋하며 남들 앞에 나서지 않으려는 유형
 수용적, 남에게 위안을 줌, 잘 동의함,
 자신에게 만족한다.



우리는 9번 유형을 평화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들이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면과 외부의 평화를 추구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혹은 우주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구도자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세상에서 조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 존재의 자아상**
 평화로움. 이완되어 있음. 꾸준함. 안정적. 부드러움. 자연스러움. 낙천적. 친절함.
- 기본적인 욕망**
 평화에 대한 욕망
- 강조점**
 다른 사람과 환경의 긍정적인 면. 이들은 세상을 이상적으로 본다.
- 보기를 피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나 환경과의 문제, 자기 스스로가 발전하고 있지 않은 것.
- 풍요로의 초대**
 세상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기.

Youth Development Program



English 1 Class

6월의 영어 1수업은 단어, 듣기, 독해와 애니메이션을 보는것으로 진행되었다.

매 수업 시작을 지난달에 만들었던 단어책의 단어들을 공부하였다. 듣기는 2번을 진행하였는데, 듣기평가라는 것에 생소함과 영어의 속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스들이 다수였다. 또 독해는 간단한 지문으로 진행하였다. 독해를 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단어에서 어려움을 다소 겪었고 문법마다 독해의 의미가 달라져 궁금해하는 유스가 있었다. 애니메이션은 '라따뚜이'를 보았는데,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흥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았다.

6월에는 중순까지는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중순에 센터에서 실시한 3일간의 교육으로 유스들이 영어수업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그 뒤에 CD반 친구들이 바탐봉으로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유스들이 축구를 수업 후에 즐기게 됨으로써 영어수업의 인원이 줄게 되었다.

7월의 수업은 6월의 독해과정에서 나온 문법들을 공부할 예정이다. 꾸준히 단어책을 공부하여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공부하고 싶다. 또 여러 방식으로 영어에 노출되어 영어의 흥미를 가지게 되는 방법을 더 찾아 함께하고 싶다.



English 2 Class

6월, 영어 2 수업은 계속 되었다. 학생수는 매 수업마다 약 10~12명 정도였다. 6월에는 CDP마을을 매일 나가는 것으로 스케줄이 변경되어, 스페셜 클래스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6월에 수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스피킹시간: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왜 까리따스에서 그 전공을 선택하였는지, 내게 지금 10000달러가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는 시간이 남아서 Jason Mraz의 Lucky를 들으며 빈칸 채우기를 하였다.
- 수요일 문법시간: 수동태 설명과 복습을 하고, 유스들이 자주 캄보디아 어순으로 말하는 단어 순서를 지적하여 복습하였다.
- 금요일 단어 및 표현시간: 단어 5개씩 배우고 예문 만들기 연습을 하였다. 표현 시간에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와 같은 표현을 배우고 유스들끼리 상황극을 통해 표현을 사용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현재 영어2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학생들간의 수준차이가 심하다는 것이다. 잘하는 유스들은 더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열심히하고 점점 더 잘해진다. 어려워하는 유스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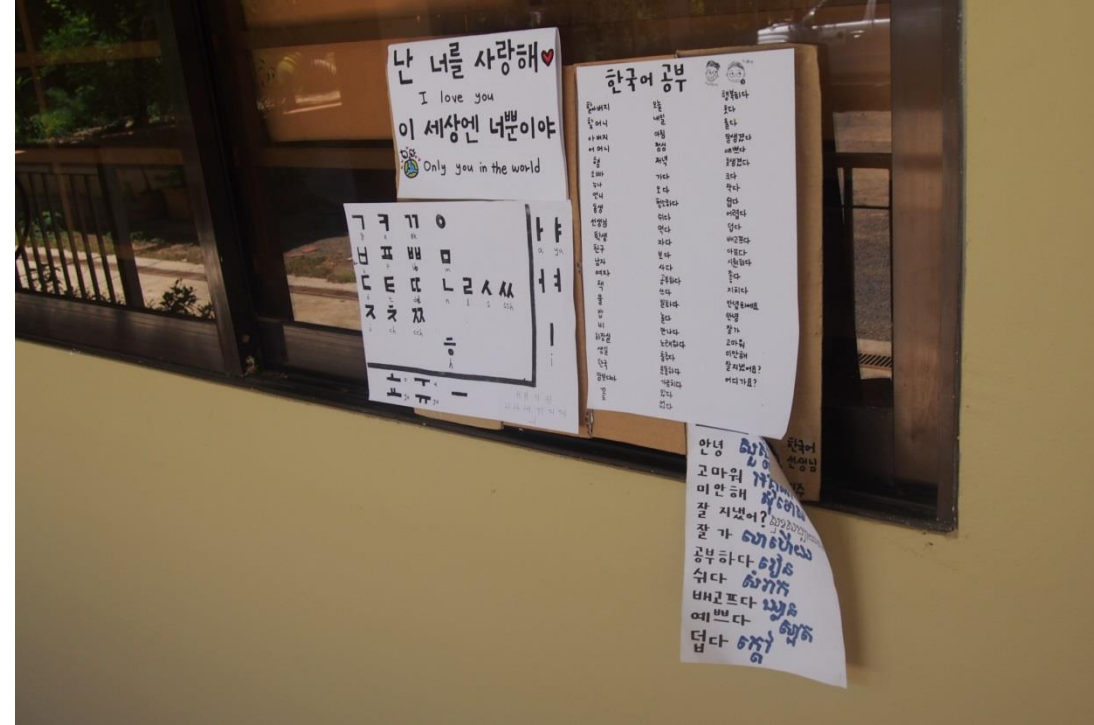
한국어 수업

5월에 가르친 단어를 복습하고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다. 유스들은 잘 따라와주었고 6월에는 문장을 가르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스들은 흥미 위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교재를 따르지 않았다. 유스들이 자주 쓰고, 유용한 문장들로 구성해서 유인물을 만들었다. 문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법도 가르쳐야 했다. 조사, 높임말, 동사 변화 등을 가르쳤다. 어려운 문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또한 숫자를 가르쳤다. 숫자를 이해하니 나이, 생일, 전화번호, 돈까지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에 오는 유스들이 줄고 있는 것이 고민이다.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유스들이 한국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 게시판을 만들고 노래도 가르치고 있다.

이번 달에는 한국어 시험(EPS-TOPIK)을 본 친구들도 있었다. 시간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도와주었는데, 잘 되었으면 한다. 수업을 듣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유스에게는 따로 영어 설명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고 깐띠들이 직접 발음을 녹음한 파일을 함께 주었다.



마을 아이들 수업

마을아이들 수업은 20분 공부, 20분 놀이로 구성되어있다. 6월에는 '공동체', '자연'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가르쳤다. 놀이 시간에는 그 날 배운 영어 단어와 관련된 미술 활동, 몸놀이, 애니메이션 시청으로 이루어졌다. 모자이크, 그림 그리기, 공 놀이를 활용하여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은 몸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아이들은 단지 애니메이션을 보러 까리따스에 오는 것 같았다. 깐띠들도 애니메이션이라는 달콤한 수단 때문에 활동 준비에 안일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활동 준비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몸 놀이와 재미있는 수업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6월 말에는 공부에 대한 의욕을 돋우기 위해, 개인 공책을 만들어 영어 단어를 써 놓았다. 아이들은 좋아했고 개인 공책에 배운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예정이다.



Atti Day - 스포츠

6월 4일. 6월의 첫 아띠데이는 스포츠로 진행되었다.

지난주에 승일깡띠가 팀원들에게 선물한 농구티를 입고 센터의 운동장으로 갔다. 깡띠들은 피구를 할 계획이었지만 피구공이 없었고, 유스들도 많이 모이지 않아서 농구를하기로 하였다.

다같이 농구를 할지, 여자유스들과 남자유스들이 나뉘어 따로 농구골대를 사용해서 할지를 이야기하였는데, 일단은 나뉘어서 게임을 하고 조금 뒤에 함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깡띠들의 부족한 체력으로 인해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6월에는 축구를 모든 유스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종종 아띠데이가 아닌 날에도 유스들이 함께 축구를 하자고 말해주어서 함께 스포츠를 할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유스들과 함께 한 뒤 깡띠들과 유스들은 함께 좀비영화를 봤다고 한다. 하지만...재미는...



Atti Day - 빈곤

6월 11일. 6월의 두 번째 아띠데이는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End Poverty' 캠페인을 우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쯤 유스들과 나누어보고 싶었다.

5명 혹은 6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의 빈곤과 우리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빈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그림으로 그려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Poverty'와 'Poor'의 개념의 애매함이 분명 존재한 채로 진행되었지만, 유스들은 깐띠들의 조금의 걱정을 뛰어넘을 정도로 깊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주었다.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뒤, 깐띠들과 유스들은 새로운 영화 '설국열차'를 함께 보았다.



우리의 빈곤과 빈곤 없는 사회

유스들과 깐띠들이 빈곤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다. 유스들은 캄보디아어로, 깐띠들은 한국어로 각 팀별로 토론하여 그림을 그려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스태프 탄의 통역을 거쳐 이해할 수 있었다.

Team A



우리가 생각하기에 빈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생각으로는 게으른 생활을 버려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늘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계속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면 돈도 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연못을 만들어서 쌀농사를 비롯한 농작에 유용하게 씬으로써 음식의 부족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는 또 학교를 만들어서 인적자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로는 빈곤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빈곤과 마약문제가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은 학교에서 교육을 끝까지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로 직업을 찾게 되죠. 즉 빈곤은 어떤 한 사람이 교육을 충분히 또 끝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것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실업자나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 역시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Team B

Team C



그림의 왼쪽 부분에는 빈곤을 표현하였어요. 캄보디아의 많은 가난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안의 농사일을 돕거나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학교에 간다면 돈을 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요.

오른쪽 부분에는 빈곤이 해결된 상황을 표현하였어요. 빈곤이 해결되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그 가족을 더욱 잘 부양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정부에서 부정부패를 멈추고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정부패를 멈추면 마을에 좋은 도로도 생기고, 좋은 건물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팀은 바로 간띠들의 팀이다. 간띠들은 어떤 이야기를 유스들에게 공유할까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첫 번째 간띠들의 빈곤은 빈부격차였다. 분명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지만 그 속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 속에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전통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유스들이 너희의 전통 춤, 전통 옷을 보여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몰랐다. 전통을 보전하고 전통 춤을 학교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는 캄보디아에 비해 한국인으로써 우리 문화를 잘 모른다는 것에 빈곤을 느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자신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또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없음에 대해 빈곤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잘 놀지 못한다는 것에 빈곤을 느꼈다. 술 없이, 돈을 소비하지 않고도 흥겹게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캄보디아에서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잘 놀지 못함에 빈곤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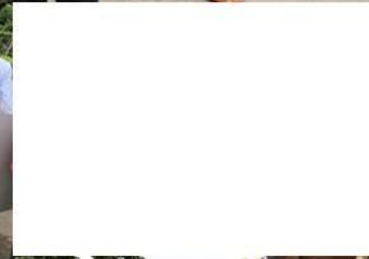
Atti Day - 350PPM

6월 25일. 6월의 세 번째 아띠데이가 진행되었다. 처음 계획은 환경의 날 행사 전에 진행하려 했던 아띠데이였지만 캄보디아에서의 여러 상황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350ppm 캠페인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쓰레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계획은 축제형식으로 3단계(쓰레기 줍기, 환경 보호 홍보 포스터 만들기, 이를 활용하여 마을에서 설명하기)로 만들어, 이를 다 마친 유스들에게 텀블러를 주기로 하였다. 텀블러를 주면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자 하였지만 축제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익숙지 않은 점이 있어 방법을 변경하였다.

페인팅반 유스들과 함께 포스터를 만들고, 탄의 도움을 받아 '우리부터 시작하자'라는 표어를 만들었다. 유스들과 함께 우리마을인 따끄덜 마을을 청소하고, 이후에 텀블러를 나누고 텀블러 사용의 의미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유스들이 텀블러를 늘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캄띠들은 행복했다고 한다



IFS

5월 중순부터 깐띠들은 Integrated farming system라고 불리는 'IFS'를 시작하였다.

연못, 비료집, 농작물이 한곳에 있어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

닭 똥, 골고루 태운 쌀겨 그리고 흙을 섞어 비료를 만들고, 시멘트 포대를 재활용하여 화분으로 사용하였다. 화분으로 만들어진 시멘트 포대를 크게 돌려 에워싼 곳에도 기를 작물의 씨앗을 뿌린다.

이후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물을 주는데, 저녁에는 영양제를 섞은 물로 주었다. 처음 작물을 심고 40여일 뒤에 우리는 IFS의 첫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음...? 우리 과연 이것을 열심히 하였는가? 봉 봉과 CD유스들...미안해요...



쉬어가는 코너 1

깡띠 시네마



이번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깐띠들이 가장 애정하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영화들, 만나보시죠!



찬투(현정)의 영화
〈로알 테넨바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즐거지 않을 이유도 없다!

I love it too much

썩찌웃(원섭)의 영화
〈투스카니의 태양〉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냥 좋은 영화.

마까라(승일)의 영화
〈노킹 온 헤븐스도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
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쓰라이띠(지수)의 영화
〈초콜렛도넛〉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왜?'

머리아픔과 마음아픔이
동시에 다가온..

소피움(민주)의 영화
〈디어미〉

나에게 쓰는 편지!

어린아이처럼 살아갈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않는 것이다.

레스토랑



레스토랑 프로젝트

6월에는 레스토랑 프로젝트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스텝들과 회의를 하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일할 유스들에게 음식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레스토랑은 7월이 아니라, 9월에 오픈하기로 하였다. 스텝들과의 미팅을 통해 6월 중 레스토랑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월까지 깐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로 했다.

6, 7월 동안 깐띠들은 레스토랑 유스들에게 요리와 식당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 등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또한, 함께 시장 조사를 진행하여 마케팅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8월에는 가게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레스토랑 오픈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스텝들과 열띤 회의를 하고 있다.

유스들에게 김치찌개를 가르치고 있다.



레스토랑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p>6월 2일</p>	<p>레스토랑 사업에 함께할 유스들과 만났다. 가계약한 가게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어떤 컨셉의 레스토랑을 생각 하는지 함께 이야기했다. 또한 프놈펜에 위치한 우리가 모델로 삼은 레스토랑을 보여주었다. 세 명의 유스들은 까리따스 레스토랑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했고, 깐띠들과 시간을 맞춰 요리 수업을하기로 했다.</p>
<p>6월 4일</p>	<p>두 명의 유스에게 깐띠들의 집에서 김치찌개를 가르쳐주었다. 돼지 김치찌개와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만든 것은 까리따스 유스들과의 저녁식사에서 함께 먹었다. 이후에 깐띠의 도움을 받지 않고 김치찌개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기로 했다.</p>
<p>6월 9일</p>	<p>오전에는 레스토랑에서 함께할 요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 요리사와 계약하지 않았다.) 피룸, 탄, 소포안과 레스토랑 미팅을 했다. 가계약한 곳에서 6월 중순 부터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 까리따스 레스토랑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과 필요한 예산을 꼼꼼하게 체크해본 뒤 6월에 사업을 실행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p>
<p>6월 12일</p>	<p>맹, 피룸, 탄과 레스토랑 오픈에 관해 미팅을 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가계약한 곳에서 사업을 진행 할 수도 없을 뿐더러 7월에도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우리는 9월 오픈을 목표로 현재 깐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p>

쉬어가는 코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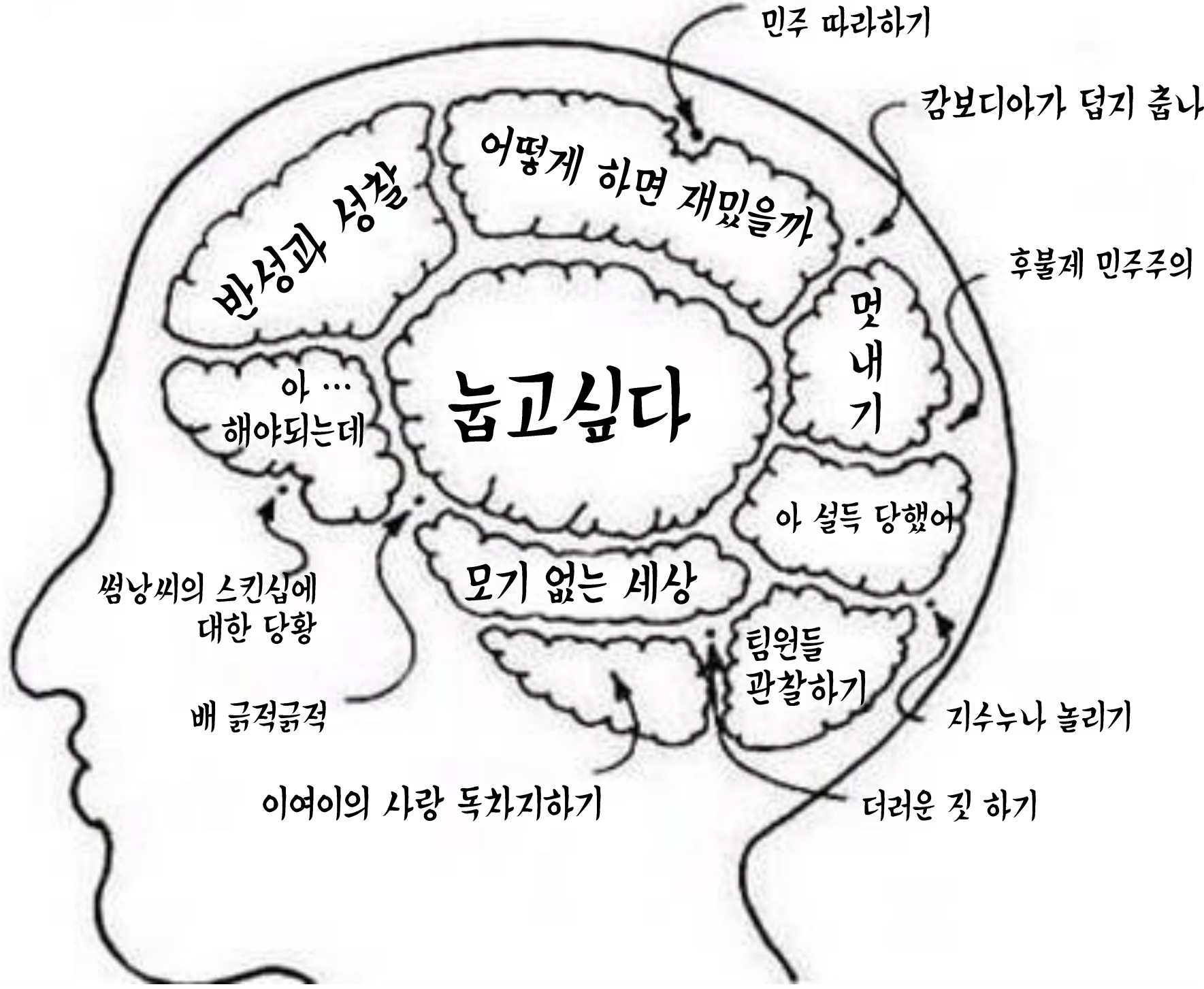
깁띠들의 뇌 구조



국승일씨,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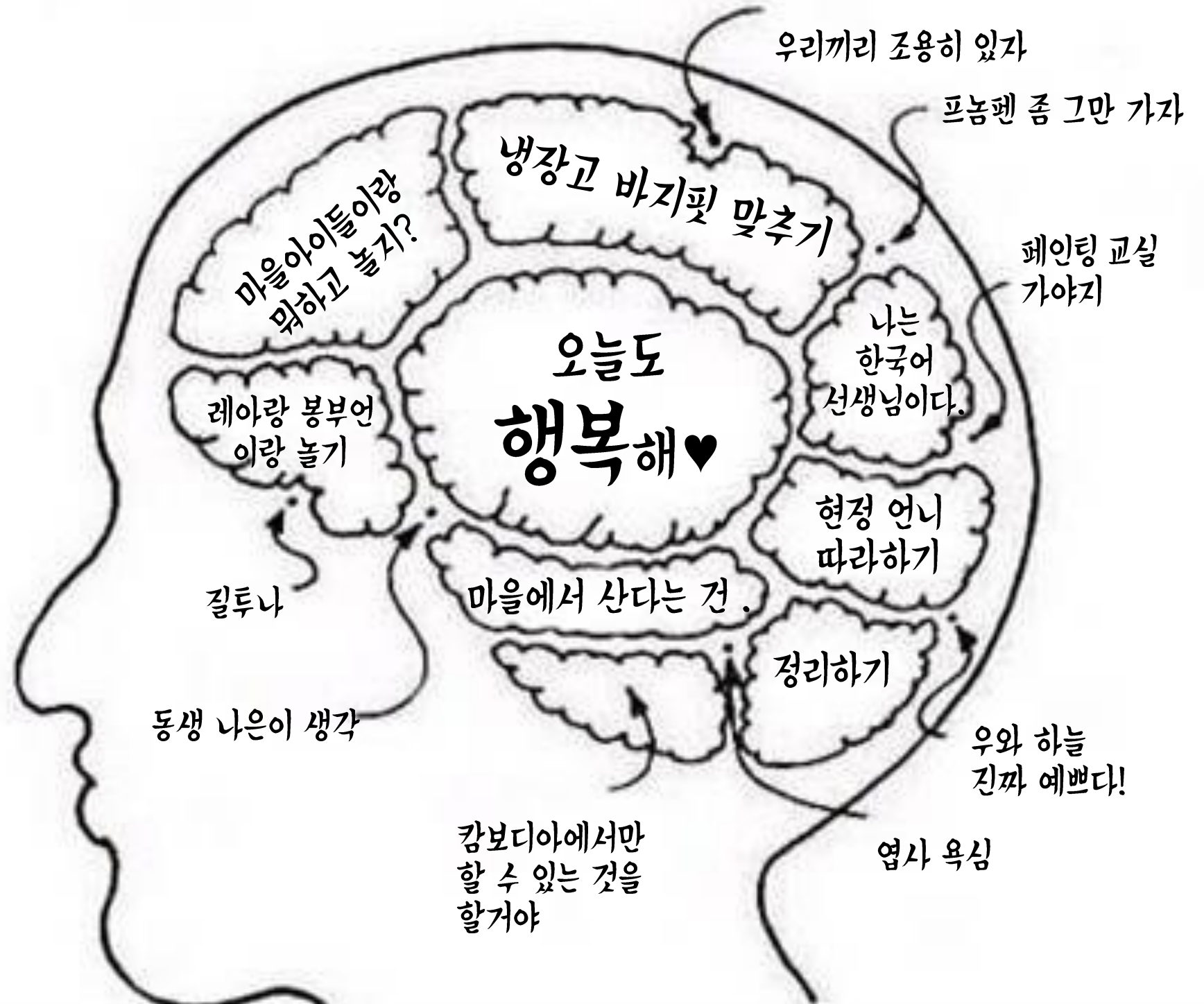
난 날고 있다



김민주씨,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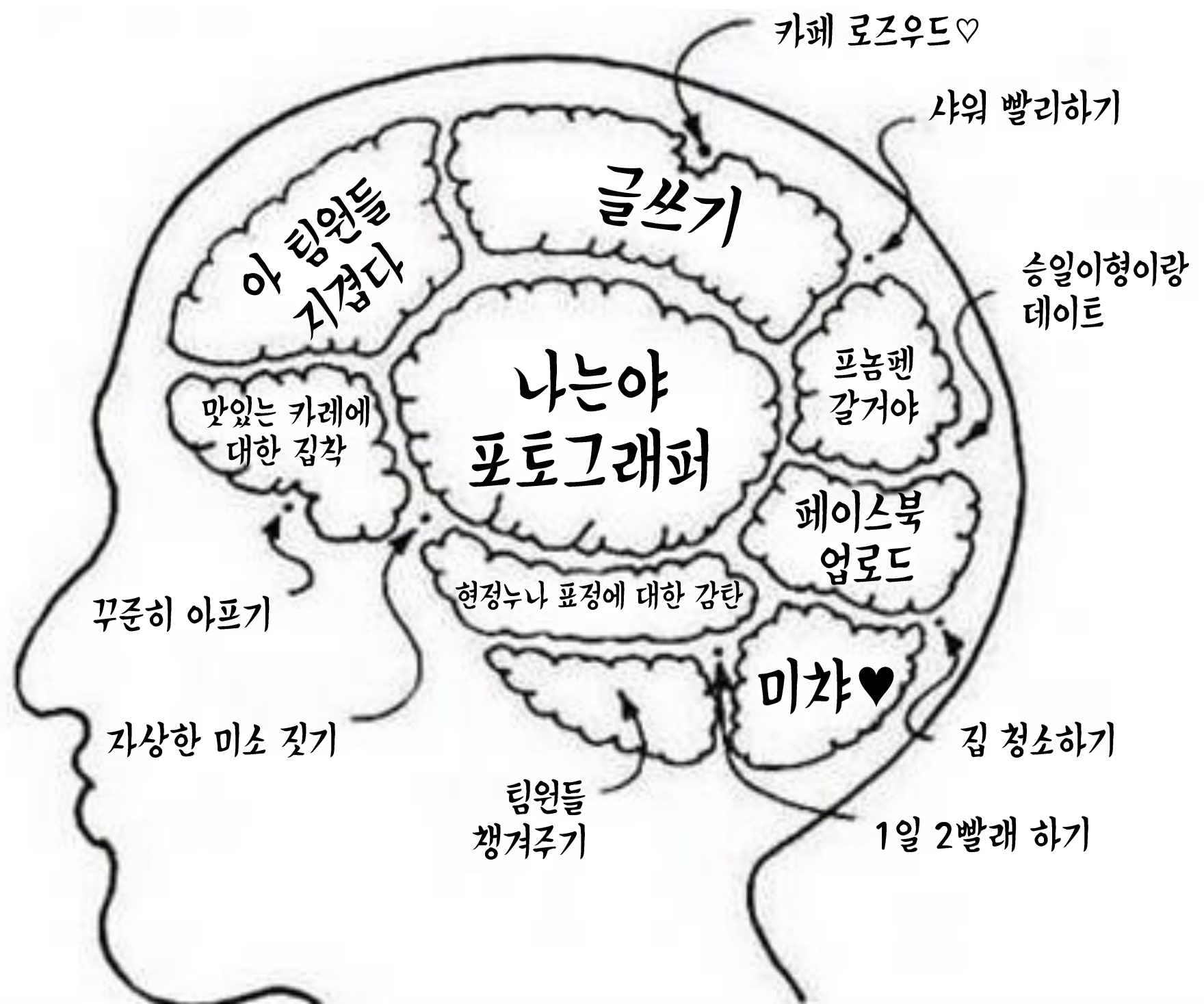
행복해요



윤원섭씨,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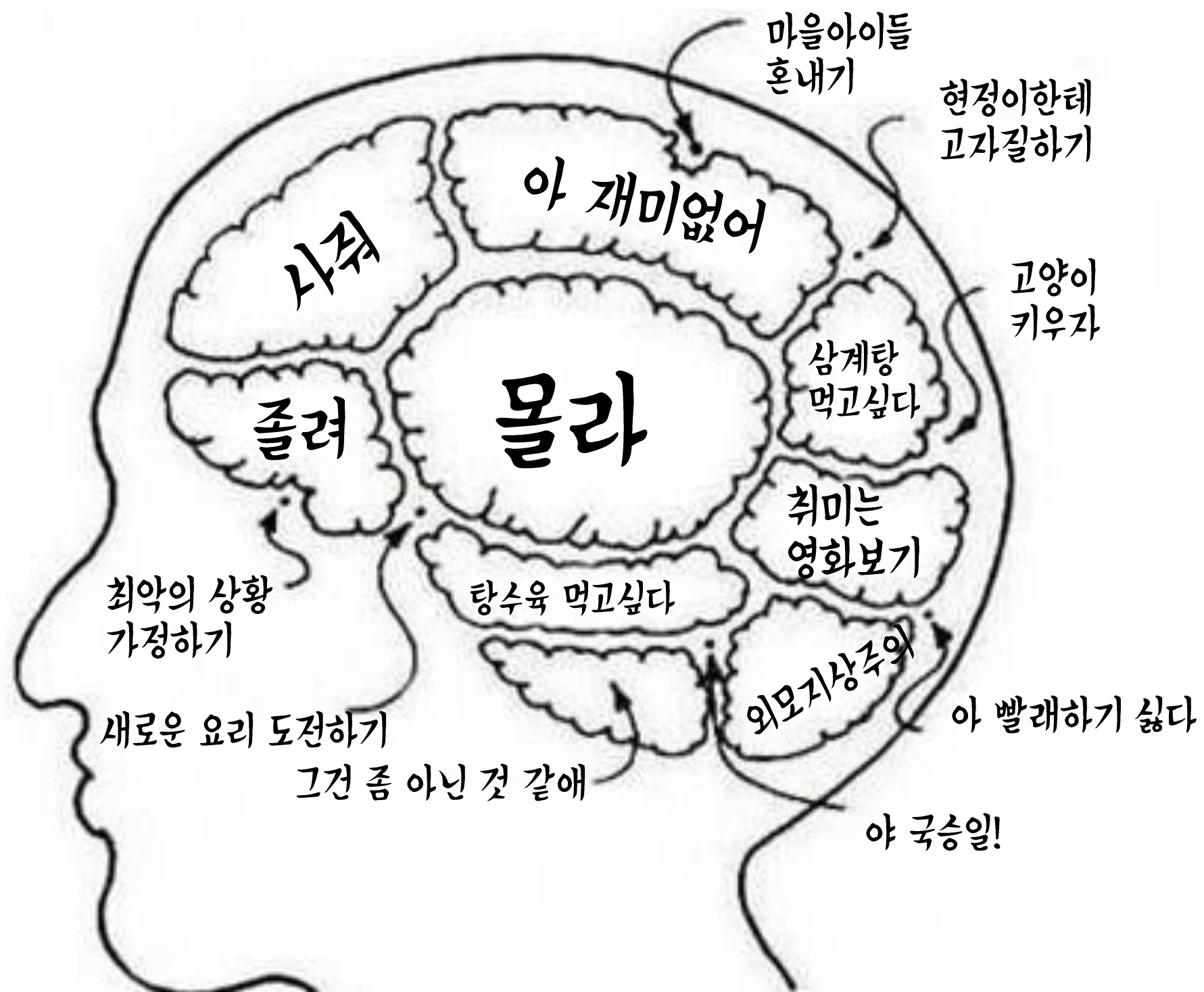


사라져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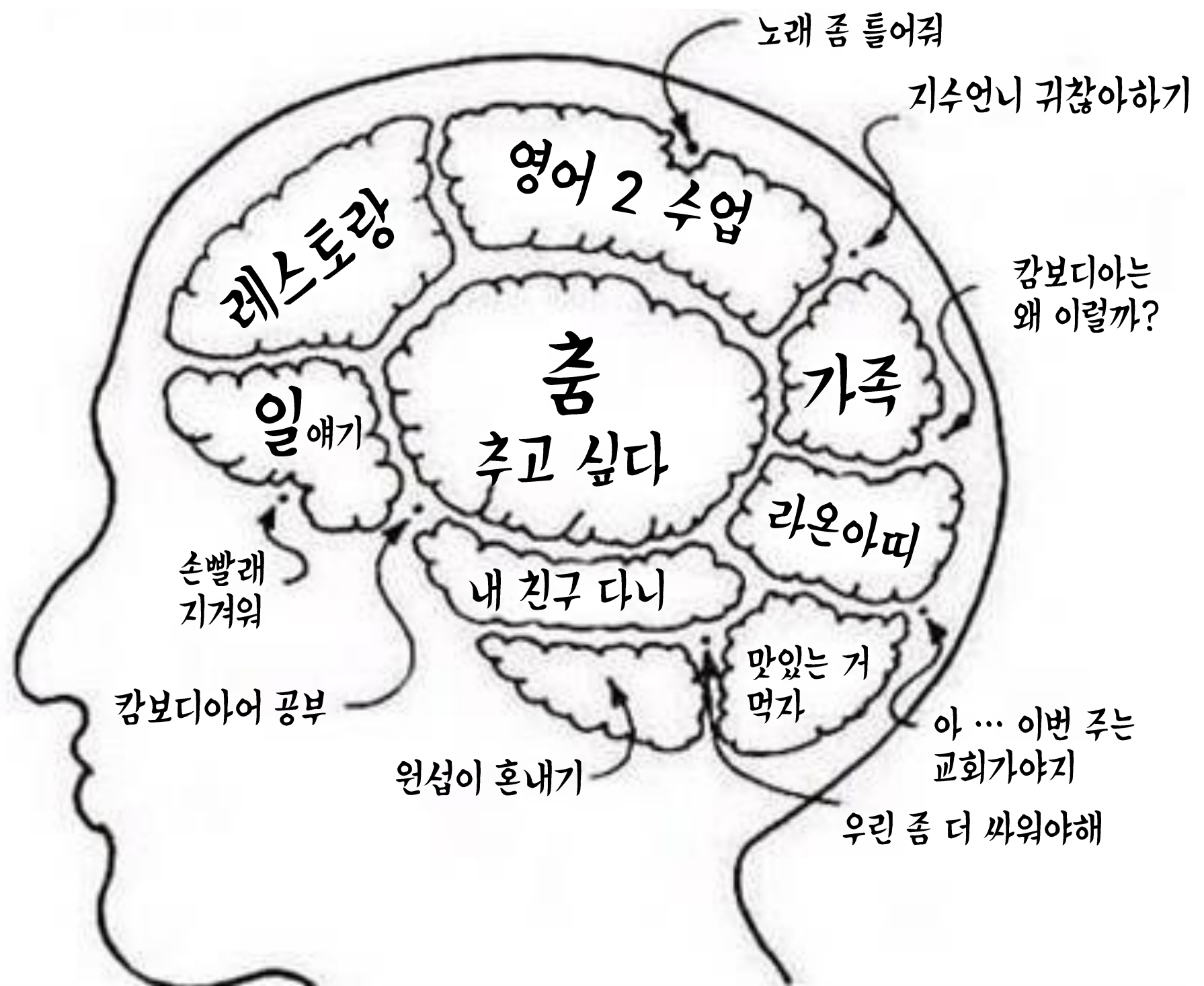
이지수씨,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

아몰랑~



차현정씨,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

오늘은 더 즐겁게!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CDP

스텝 쌤낭 씨와 왕 할머니 집에서 진행한 하이드로포닉을 두 달 만에 마무리 했다. 처음이라 어설피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에 깐띠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첫 번째 하이드로포닉이 완성 됐다.

두 번째 하이드로포닉은 Kandal 마을에서 스텝 리티 씨와 시작했다. 하이드로포닉에 익숙해진 우리, 재료를 미리 잘 준비해준 스텝 리티씨, 마을의 열정 넘치시는 농부님들 그리고 그 농부님들에게 일을 잘 가르쳐주는 스텝 어덤의 조화로 우리가 두 달여간 했던 하이드로포닉을 4일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하이드로포닉은 악어마을에서 진행했다. 이 곳에서도 농부님의 자발적인 실천, 우리들의 능숙한 일 처리 그리고 스텝 어덤의 도움으로 4일만에 완성했다.



농부님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하이드로포닉도 작업도 잘하여 농부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행복을 드리고 싶었다.

간띠들과 처음으로 하이드로포닉을 하신 왕 할머니 집에서 하이드로포닉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그만큼 왕 할머니와 가족 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팔 아저씨와 피으 아저씨 댁에서 진행한 하이드로포닉은 빠르지만, 그 마을과 아저씨와 가족 분들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없었다. 가장 좋은 건 그 중간의 형태인데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아쉬움이 많이 남은 지난달의 하이드로포닉. 이를 발판으로 다음 달에 하이드로포닉을 하게 되는 악어마을에서의 다른 농부님과 또 다른 2곳에서 농부님과 가족 분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며 보내야겠다.



환경의 날



환경의 날

환경의 날을 맞아 캄보디아 환경부 행사에 참여 했다. 정부 인사의 설명을 듣고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유스들은 정부의 큰 행사에 참여 했다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했다. 하지만 깐띠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보였다. 그래서 인지 즐거움이나 보람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쓰레기가 나왔다. 깐띠들과 유스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주웠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환경을 위한 일이었다.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좀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8개국 연대 캠페인을 의미 있게 하지 못한 것 같아 드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는 환경의 날이었다.





뜻레바티

똥레 바티

6월 7일 일요일, 깐띠들은 유스들과 함께 바티 호수에 소풍을 다녀왔다. 깐띠들과 유스들이 함께하는 첫 나들이였던 만큼, 설레고 즐거웠던 하루였다. 특별한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며 놀았던 하루. 함께한다는 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깐띠들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유스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였다. 까리따스 유스들 대부분의 가정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풍 자체를 처음 가본 친구들도 많았다. 또한, 유스들 형편을 고려하면, 유스들도 꽤 많은 돈을 부담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깐띠들은 유스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즐거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유스들이 다음 소풍을 제안하였다. 다음 소풍을 생각하기만 해도 좋아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며 설레더라 ㅎㅎ



쉬어가는 코너 3

내 **캠**보디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속피웃의 캄보디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임임! 저의 캄친소를 시작할게요. 저의 캄친은 안전운전을 추구하며, 웃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주말이면 자주 저와 함께 프놈펜으로 향하는 제 캄친은 바로 **봉 썸리응**입니다. 한피들의 고정 툽툽기사와 고정 손님으로 만난사이지만 저에게 썸리응은 특별해요. 저에게 썸리응의 모토는 다른 사람들의 모토와 소리가 달라요. 저만 썸리응의 툽툽소리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팀원들은 저에게 썸리응이랑 데이트하냐며, 애인이냐며 장난치지만 저는 썸리응의 툽툽을 타고 함께 이동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

CDP값다 집에오는길에 썸리응과 함께 점프샷! 자세리 보면 썸리응 옆에 속피웃이 있음..



속피웃이 몰래 찍은 썸리응의 옆모습 ㅎㅎ



소피움의 캄보디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소피움의 친구는 레이! 함께 사는 이여이의 첫째 손녀딸이자, 까리따스 스텝 어댑트의 부인이예요.
집 앞에 미샤, 미쵸, 카페 따옴뜨꺼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어요. 심심할 때마다 놀러 가서 수다를 떨곤 해요 ^3^
가게에서 알바를 하거나 어댑트와 레이의 딸 비싸이와 놀아주기도 한답니다.
레이는 지금 배 속에 예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 용품을 사러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좋은 언니가 한 명 더 생긴 기분이에요 ♡

‘소피움의 캄친 - 레이’의 모습

레이네 집에서 놀다가 소피움과 레이의 셀카



마끼라의 캄보디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마끼라입니다. 저의 캄친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단어선택에 무리가 있지만...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늘 생각해주는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할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밤 창문으로 “마끼라~ 남 바이 하~이? 남 찌란찌란~(밥 먹었니? 많이 많이 먹어~)”라고 물어봐 주시고 팀원 중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주는 **이여이(할머니)**... 아포지 마세요 ㅠ..ㅠ 사랑합니다♡

이여이... ♡



찬투의 캄보디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제 친구 **다니**를 소개합니다. 다니는 까리따스 행정반에서 공부하는 유스입니다. 다니와 저는 5월 즈음부터 친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둘도 없는 너무도 소중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영어와 캄보디아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하는데요. 사실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생과 봉사자가 아닌,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이 된 다니. 제 인생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다들듯 님은듯. 웃는 모습이 님은 찬투의 캄친 다니와 찬투



쓰라이 티의 캄보디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저의 캄친은 그림반 친구 **꾼티**입니다. 처음에는 '티쳐' 라고 부르던 **꾼티**가 '티' 라고 불러주는 것도 좋고~ 사실 저보다 어린 **꾼티**지만 매번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한다고 저를 혼내곤 해요. 폼지락거린다고 혼내고 뭐 잘 못하고 있으면 와서 엄마처럼 뭐라고 다그치지만 그래서 더 친근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에 놀러 온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이 아니어도 이 5개월의 시간이 끝이 아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쓰라이 티의 캄친 - 꺄리으



따그마으 강가 놀러갔을때 꺄리으랑 쓰라이 티



프린팅이
가득



6월, 깐띠들은 조금 지쳤다. 지난 달에 비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우리는 쉬었으면 했다.

그런데 마침 19일, 급작스러운 휴일이 생겼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꿀 같은 휴일.

민주 단원의 의견으로 깐띠들은 프놈펜에서 다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카페에서 조금은 늦은 점심을 먹고, 모처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며 우리는 서로의 꿈과 가족, 친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근처에 있는 일식 집에 들어가 저녁을 해결하고, 칵테일로 하루를 마무리 했다.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프놈펜 나들이.





덤프사이트 위생교육

27일 토요일, 깐띠들은 카리타스 유스들과 함께 덤프사이트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손 씻기, 머리 감기, 손톱 자르기, 총 3개의 활동이었다.

외관만 보면 때, 덤프사이트 마을은 여느 캄보디아와 마을과 똑같았다. 쓰레기가 많고,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와 쓰레기들이 하천에 유입되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마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져 보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날 활동의 주체는 깡뜨들이 아닌 '카리타스 유스'들이었다. 자원봉사를 나온 유스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감기고, 꼼꼼히 손 씻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니, 통제나 활동이 수월했다. 심지어 몇몇 유스들은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마을 아이들에게 손 씻기와 머리 감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위생교육을 했다는 것도 좋았지만, 깡뜨들이 아닌 카리타스 유스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 그런 활동이었다.



깎뚜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법





Episode 1 (06월 04일)

CDP를 하던 중, 재료가 없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간띠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즉흥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뽀망뽀망한 눈으로 간띠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흙에 알파벳을 쓰고, 버려진 종이에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덥고 지친 하루에 활력이 되어주었다! 또 만나고 싶다 예쁜 아이들♡

Episode 2 (06월 10일)

우리들의 언니(누나), 피룸과 함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피룸에게 캄보디아 음식 록락과 파파야 샐러드를 배웠다. 간띠들은 떡국을 했다. 푸짐한 밥상이 만들어졌다. 피룸은 김과 김치를 가장 좋아했다...





←

Episode 3 (06월 18일)
 까리따스 영화의 날. 며칠 전부터 영화의 날을 홍보했지만 급작스럽게 길어진 휴일 때문에 많은 유스들이 집에 갔다. 그래서 상영관을 하나만 만들어 마을 아이들과 유스들을 데려와 함께 Wall-E를 봤다. 마을아이들, 유스, 간띠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좋았다.

Episode 4 (06월 28일)
 6월 말 피자 컴퍼니에서 1+1 프로모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덤의 가족과 피자 컴퍼니에서 함께 외식을 했다. 어덤의 딸 비싸이는 이날 따라 정말 예뻐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배도 마음도 가득 차는 하루를 보냈다.

→



쉬어가는 코너 4

가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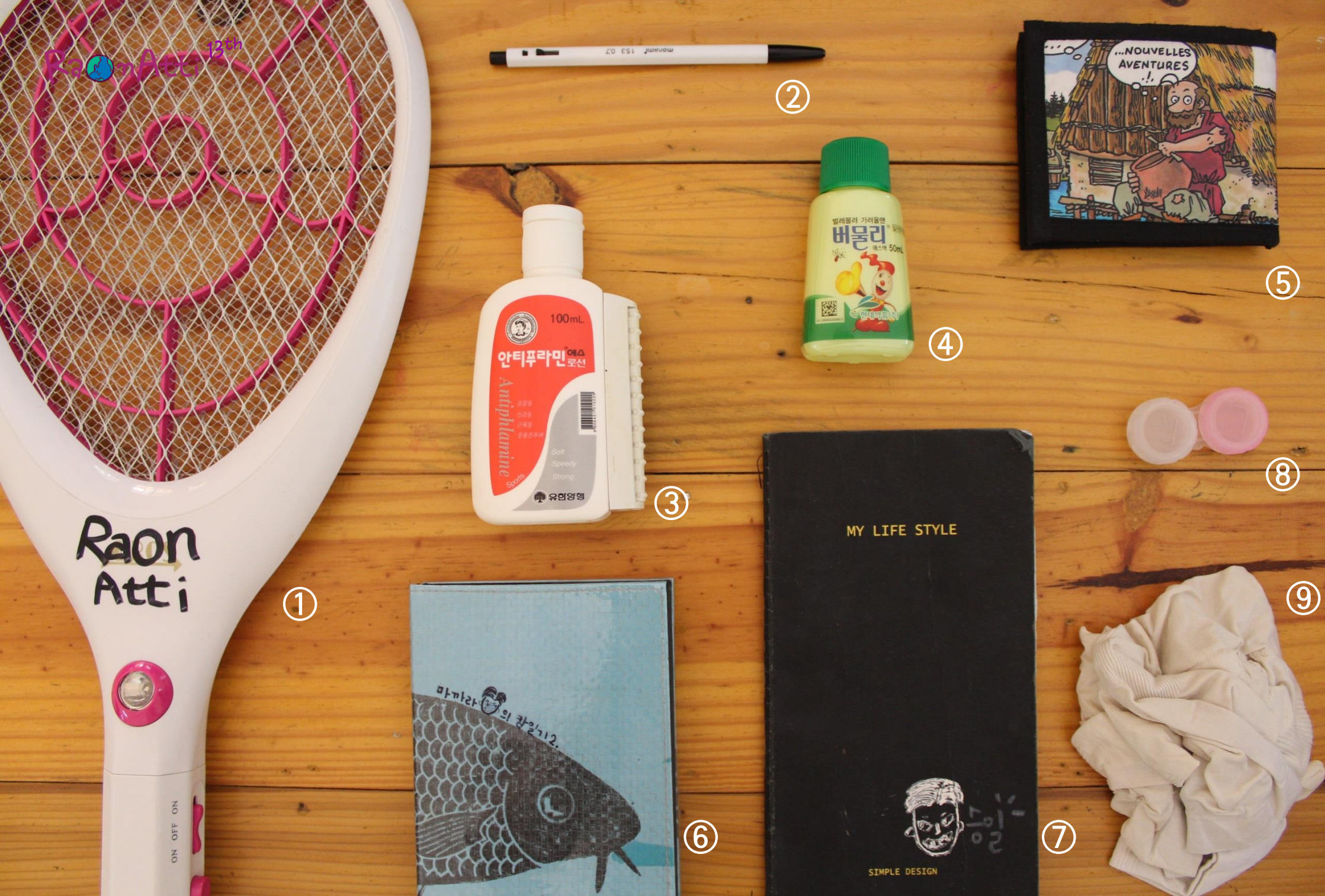
뒤쳐라!!



민주 가방



① 러시아 마켓에서 산 4달러짜리 가방. 일 다 날 때나 놀러 갈 때 항상 가지고 다님. 자기한테 잘 어울린다고 써달라고 함. ② 비 맞아 녹이 슬어버린 시계. 아버지가 라온아띠 열심히 하라고 사주셨다고 함 ③ 유스친구가 준 대나무 반지. 안 끼고 다녀서 가방에 있는 줄도 몰랐음. ④ 300원 짜리 커피 먹으려고 모으고 있는 돈. 현재까지 170원 가량 모았음. ⑤ 민주 아기때 냄새가 배어있는 곰돌이푸 손수건. 아기 때부터 쓴 거라며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손수건을 보면 민주 어릴 때가 보임. ⑥ 피곤함을 날려주는 커피믹스. 몰래 혼자 먹으려고 숨겨두고 있다가 걸림. ⑦ 동민 간사님이 주신 세월호서적. Remember 2014.04.16 ⑧ 친구들이 대만에서 사다 준 지갑. 지갑에 이화여대 펜던트를 장식함으로 한층 더 멋스러움을 더함. ⑨ 어두운 입술 색을 바꿔주는 립밤과 틴트. 아침마다 비장한 얼굴로 바름. ⑩ ⑨를 도와주는 이천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손거울. 12기가 정리해둔 박스에서 획득. ⑪ 스케줄을 정리하는 kb국민은행 수첩과 핸드메이드 캘린더. 항상 가지고 다니며 하고 싶은 일이나 하게 될 일들을 기록함. ⑫ 맥주먹고 챙긴 맥주 받침. 이번달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이게 다임. ⑬ 세린간사님이 주신 상당수의 머리끈. 많아서 내년 까지 써도 못 쓸듯. ⑭ 글쓰기를 위한 볼펜과 화이트. 쓰고 지우고 할때 씬. ⑮ 센트럴 마켓에서 1달러짜리 코끼리 일기장. 항상 가지고 다니며 감정을 기록함.



승일 가방

① 승일 단원이 졸라서 장만한 전기 모기 채. 승일 단원 손에 붙어있음. ② 볼펜.볼펜. ③ 만병통치약. 뱀,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어깨결림, 신경통, 피부가려움, 벌레 물린 데에 쓰임. ④ 물파스. 모기야 그만좀 물어라. ⑤ 프랑스 만화가 그려진 지갑. 재활용품으로 만든 5달러짜리 지갑. ⑥ 붕어일기장. 센트럴 마켓에서 새로 산 일기장 귀여운 붕어가 있음. 그 위에 지수단원이 낙서해 놨음. ⑦ 군 시절부터 쓴 일기장. 다시 보며 마음을 다짐. 지수단원이 또 앞에다 낙서해 놨음. ⑧ 렌즈통. 이게 왜 들어 있지? ⑨ 걸레 아니 팔토시. 큰마음 먹고 메이커 샀는데 걸레 됐음.

현정 가방

① 일기장. 생각날 때마다 씬. ② 카리따스 전자키. 이거 없어서 못 나갈 때가 많음. ③ 민주 단원이 써준 편지. 내용은 비밀. ④ 두개의 펜. 위에 있는거는 대학교 논술 볼 때 받은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시장에서 산 80원짜리 펜이야ㅎㅎ. ⑤ 뭐가 많이 들어있는 파일철. 수업준비를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님. ⑥ 손 세정제. 체코 교환 학생 시절 샀는데 지금도 가지고 다님. ⑦ 돈 무더기. 군것질 하려고 가지고 다님. ⑧ 수첩. 기록을 하려고 가지고 다님. 주로 캄보디아어 단어장으로 씬. ⑨ 동전 팔찌. 민주단원이 선물해줘서 가지고는 다니는데 차지는 않음. ⑩ 유스 친구가 선물해준 팔찌. 이것도 가지고 다니는데 안참. 팔찌가 거추장스럽다고 함. ⑪ 이천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손거울. 이거 또 나왔네. ⑫ 인턴시절 지인이 선물해준 원서. 있어 보임. ⑬ 립글로즈. 로드샵 50%세일 할 때 샀음. ⑭ 밴드. CDP일할 때 다칠걸 대비해 가지고 다님. ⑮ 엽서뭉탱이. 지인들에게 보낼 예정임.





지수 가방

- ①스마테리아 지갑. 돈이 많이 들어있음.
- ② mp3 & 이어폰. 기분이 다운될때 사용함.
- ③ 손목시계. 더워서 안차고 다님.
- ④ 13기 방글팀이 12기 최종보고회때 판매한 팔찌. 도래매듭.
- ⑤ 돈봉투. 스텝과 유스들이 십시일반 모은 덤프사이트에 사용될 돈.
- ⑥ 박노해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 ⑦ 손수건. 손수건에 땀이 마를 날이 없음.
- ⑧ 볼펜. 오래됐는데 계속 고쳐서 씀. 역시 공대생인가.
- ⑨ 공금 지갑. 회계담당이라 항상 가지고 다님.
- ⑩ 일기장. 표지에는 어릴 때 동생과 찍은 사진이 붙어있음.
- ⑪ 앙코르와트 엽서. 친구들에게 보낼 엽서들임.



원섭 가방

① 캄보디아 뉴스. 영어로 되어 있음. 읽어보임. ② 캄보디아 주간지. 멋짐. ③ 포토그래퍼 관련 서적. 역시. ④ 노트1. 이것저것들을 적는 노트임. ⑤ 노트2. 노트1 내용을 정리하는 노트임. ⑥ 필통임. 펜 장사 해도 됨. ⑦ 집키. 고래 열쇠고리가 달려있음. 머리부분을 누르면 뽁뽁~ 부뜨떡~ 거려서 귀여웠음. 요즘은 약이 다 해서 횡~..흐. 1. 거림. 불쌍함. ⑧ 일기장. 있었던 일들과 계획을 기록함. ⑨ 카메라. 원섭 단원의 영혼임. ⑩ 비둘기 날아다니는 엽서. 친구에게 보내는 엽서임. 멋짐.

개인에세이



1. 아침에 눈을 떴는데 CDP 일하러 가기가 싫었다. 지겨웠다. 그래도 어찌겠어, 가야지. 하고 몸을 일으켰다. 아침밥을 했고, 마을에 갔다. 여전히 태양은 뜨거웠다. 내 인생이란 말은 틀린 표현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일 리 없다. 안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하기 싫은 일도 해야하겠는가. 안 그럼,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는가. 또, 왜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한 일이 잘 안되기도 하냐 말이다. 아무래도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엄청나게 큰 것이 있고, 그 속에 작은 내가 있는 느낌이다. 인생은 나보다 크다. 나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아등바등 파닥파닥 푸드덕푸드덕 철퍽철퍽

2. 버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들 덕분이다.

이번 주말에도 유스들과 놀기로 했다. 주말이 기다려진다. 엄마와 통화를 하고, 밝아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다. 승일이 목이 길어지는 것에 한참을 웃는다. 남자친구로부터의 메시지에 기분이 좋다. 민주랑 업사를 찍는다. 원섭이랑 춤을 춘다. 지수언니랑 커피를 사먹는다. 비를 맞으며 춤을 춘다. 피룩씨가 해준 록락을 먹는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다. 영어 수업을 준비한다. 오늘 수업 들을 생각에 설렌다는 우리반 유스의 말을 들었다. 나도 설렌다.

I hate reality, but it's the place where I can get good steak. — Woody Allen



#1. 6월.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바빠서가 아니라 매일 악몽을 꾸기 때문이다.

도망치거나, 칼에 찔리는 꿈들이 대다수이다.

가장 무서운 건, 누군가가 문 너머에서 나를 쳐다보는 꿈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진다는 거다.

기가 약해서 그런가... 잘 잤다는 기억이 별로 없다. 숙면을 취하고 싶다.

#2. 미루고 미뤘던 글을 썼다. 킬링필드에 관한 글이었다. 40년 전, 한 사상가 때문에 캄보디아 인구의 ¼가 죽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내가 모을 수 있는 자료는 죄다 모았다.

차마 이곳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 못했다. 이곳에서 킬링필드는 너무나도 아픈 역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사진 한 장, 글 하나의 무게가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를 내가 건드는 기분이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일이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캄보디아에 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들려주고 싶다.

#3. 팀원들과 갈등을 겪고, 싸우고, 울고. 참 내 찌질한 모습 보여줄 때로 보여주었다.

같이 산다는 건 역시 힘들다. 그러나 몇 배로 여기서 웃고, 떠들고, 춤춘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그리운 건 캄보디아가 아니라 5개월 간 함께한 팀원들일 것이다.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짓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털털한 기분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말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01

지나고 보니 나에게 6월은 시작부터 참 많이 답답했고, 답답함을 넘어 껍껍하고.. 지루하고.. 자꾸, 자주 그랬다.

#02

하루는 유스친구집에 놀러 갔다. 가기 전부터 두려웠다. 낯설고 다른 환경에 혹여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진 않을지.. 두려웠다. 그래서 가기를 망설이고 가지 않으려 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후회했다. 또 지나고 나서야 미안하고 또 후회했다. 나에게 가장 먼저 살갑게 다가가 준 친구였는데 나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었나?라는 생각과.. 그밖에 여러 생각이 동시에 밀려들어왔다. 한동안 고민했다. 나의 고민이나 걱정과 달리 딱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그 친구가 좋고.. 하지만 그때의 내 행동, 표정 그 모든 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03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워졌다. 문득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고 마치 연쇄작용이라도 한 듯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CDP를 하러 간 아저씨 닥의 고양이를 보고 매력이가 보고 싶어졌다. 친구이랑 답 없는 이야기로 새벽까지 이야기하던 순간들도 그리워졌다. 그와 동시에 함께 사는 이여이가 눈에 보였고, 까리따스 직원 분들이 보였다. 매일 나만 이야기하지만 꼬리를 흔들어주는 니코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웃을 수 있는 유스친구들도.. 그리움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다르겠지만.. 지금의 내가 그리워하는 과거의 순간들에 그리 큰 후회가 없듯..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나 역시 큰 후회 없이 웃고 떠들고.. 함께 이길..

#04

수많은 말들보다 한마디 말이 더 크게 내가 올 때가 있다. '너를 만나 반가워'라는 말이 진심으로 와 닿았다. 모든 상황은 우연의 연속인 것 같다. 그런 우연의 연속들이 모여 특별한 사람,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느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들은 그 한 문장의 말이 참 따스했다. 나도 뭐라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래'라는 말과 웃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그럼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더 따스하게 느껴졌다. 이런 우연들로 인해 매번 느낀다. 참 생각이 깊구나 따뜻한 사람이고 여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된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할 말이 있는데 안 한다면. 고민이 있는데 계속 생각만 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고민 때문에 생각만 하는지 알 수 없다.

좋다.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말해 줄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리는 내가 좋다. 힘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 나와야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용기 내어 말하는 당신이 좋다.

안 한다.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안 한다.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까지 하고 싶지 않다.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또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안 해도 된다.

이도 저도 아니다.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행복하다. 몰입해서 살진 않지만, 몰입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있어서 행복하다. 혼자이고 싶을 때는 혼자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외롭거나 이야기가 하고 싶을 때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 이도 저도 아니라서 행복하다.

-승일

[일상]

01.

그리 특별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다
나 또한 그리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간다.
함께 있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존재.

내가 진짜 이 곳에서 살고 있나 보다.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롭고, 특별하고, 가슴 설레지 않는다.
그저 지루하고, 여전하고, 평범한 날들.
오늘도 날은 덥고, 하늘은 파랗고, 우리 마을 간달 따끄돌은 조용하다.

어느 날 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한 장면이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따가운 햇볕, 지겨운 일, 매일 가는 까리따스, 1월부터 나와 함께한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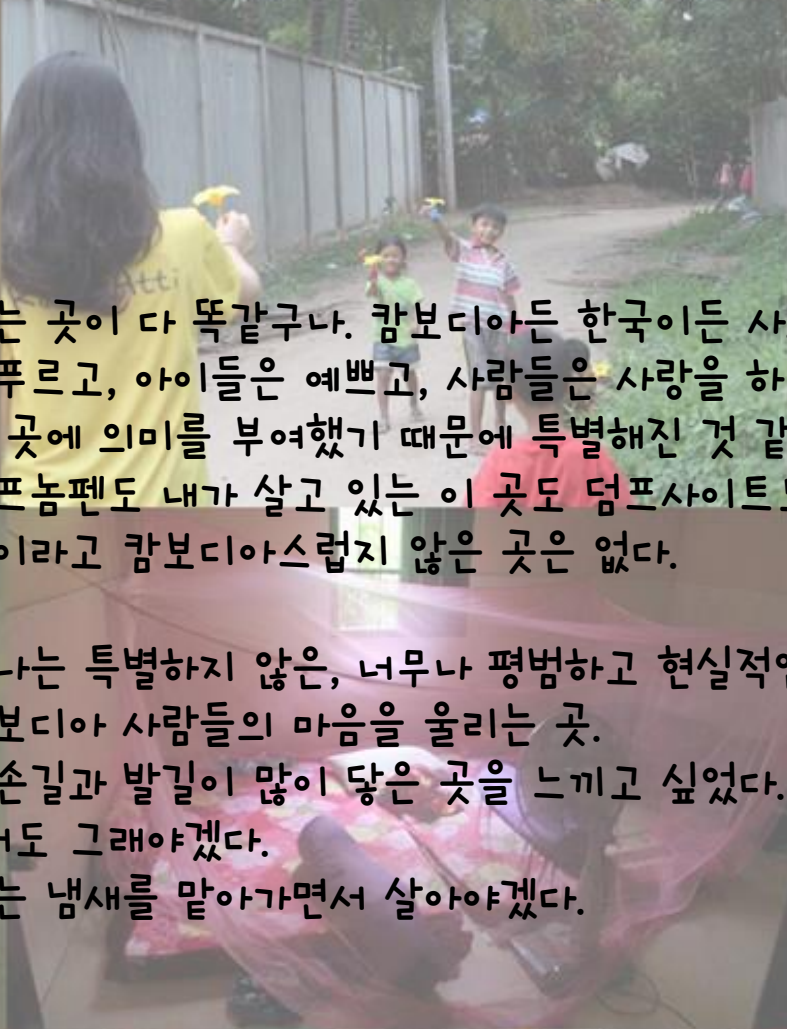
나를 '나' 로 만들어준 익숙한 것들, 그만큼 소중한 것들.

나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고,
나의 일상 속에서 서로를 닮아가는 우리 다섯이 정말 좋다.

02.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구나. 캄보디아든 한국이든 사회 문제가 있고, 바꾸어야 할 것이 있고,
청춘은 푸르고, 아이들은 예쁘고,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다투며 살아간다.
내가 이 곳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 같다.
화려한 프놈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곳도 덤프사이트도 모두 캄보디아다.
어느 곳이라고 캄보디아스럽지 않은 곳은 없다.

하지만 나는 특별하지 않은, 너무나 평범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나 보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곳.
그들의 손길과 발길이 많이 닿은 곳을 느끼고 싶었다.
한국에서도 그래야겠다.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자전거 타고 조용하지만 움직이는 마을로 산책 가고 싶다. 시원한 바람에 더 시원하게 웃고 싶다. 레아랑 수다 떨고 싶다. 어덤 훑쳐보고 싶다. 비싸이랑 놀고 싶다. 봉부언 따라 시장 가고 싶다. 피룸 붙잡고 이것저것 묻고 싶다. 다섯 명이서 재미있게 놀다가 나 혼자 고민에 빠지다가 눈치 보다가 기분 좋아졌다가 하고 싶다. 마을 아이들이 말 잘 들어서 쿵짝이 잘 맞게 놀고 싶다. 페인팅 클래스에서 그림 그리면서 놀고 싶다. 유스들과 캄보디아어로 수다 떨고 싶다. 예쁜 엽서 사고 싶다. 이여이한테 손녀딸처럼 바느질 맡기고 옆에서 구경하고 싶다. 이여이에게 캄보디아어 배우고 싶다. 맛있는 망고 잔뜩 먹고 싶다. 새파란 하늘과 새하얀 구름 밑에서 감탄하고 싶다. 어둑어둑해지는 돌길을 터벅터벅 걸어오고 싶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옥상에서 노을 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싶다. 정말 갈증날 때 맥주 마시고 “캬~” 소리 내고 싶다. 난장토론 시끄럽게 하고 싶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우리 집 마당 새파란 나무들을 바라보고 싶다. 시끄러운 새소리에 잠에서 깨고 싶다. 오늘 너무 좋다고 수천 번 얘기하고 싶다. 다같이 영화 보고 싶다. 하루나눔 하고 싶다. 박장대소 하고 싶다. 밤하늘의 별 밑에서 미친 듯 춤추고 싶다. 엽사 배틀하고 싶다. 자기 전에 수다 떨고 싶다. 막내 노릇 툭툭히 하고 싶다. 식당에서 한국어로 맛없다고 대놓고 욕하고 싶다. 자연스러운, 예쁜 사진을 찍고 싶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싶다. 한없이 잉여롭게 널부러져있고 싶다. 팀원들에게 요리 해주고 욕 먹고 싶다. 노을 질 때 마을 산책하면서 예쁜 길에서 감탄하고 싶다. 더 솔직해지고 싶다. 현정언니 따라 하고 싶다. 지수언니 놀리고 싶다. 원섭이 글 쓰는 옆에서 뭐하냐고 계속 묻고 싶다. 승일 오빠한테 잔소리하고 싶다. 계속 심심풀이 땅콩이고 싶은..건 잘 모르겠다. 가리따쓰 오피 앞에서 멍 때리고 싶다. 노래 들으면서 툭툭 타고 싶다. 늦은 밤 잠이 와도 안 자고 싶다.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한국에서 만나요